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곽 소 영

이화여자대학교

손 은 정[†]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을 바탕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 남녀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둘째, 심리적 욕구 충족과 관계만족 간에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셋째, 변인들 간의 매개 역할에 있어서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성관계경험이 있는 대학생 361명(남 165명, 여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욕구충족,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관계 만족,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욕구 중 유능성 욕구충족, 갈등해결전략 중 부정성과 부정감정표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심리적 욕구충족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역할에 대한 남녀 차이에 대한 비교 결과, 남녀 모두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은 심리적 욕구충족과 관계 만족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해결전략 중 남자는 긍정감정표현만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자는 긍정감정표현 외에 부정성과 부정감정표현도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성 관계에서 남녀의 행동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주요어 : 이성 관계,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심리적 욕구충족, 관계만족, 성차

* 이 연구는 2007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여성심리분과에서 발표(포스터)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손은정,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1-7
E-mail : wdcshon@hotmail.com

이성 교제는 결혼 전 남녀들이 갖는 하나의 보편적 과정이나 활동, 나아가 잠재적으로 배우자 선택을 위한 전초 과정이다(홍대식, 2002). 이성교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며, 대학생들에게서도 대인관계 문제와 함께 이성교제 관련 문제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설기문, 1993). 바람직한 이성교제는 이성에 대한 이해, 원만한 이성 관계, 성숙한 인격형성 등 많은 유익을 제공하지만(Loyd & Cate, 1985), 원만하지 못한 이성 관계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될 만큼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최순남, 1989). 따라서 이성관계가 원만해지도록 돕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남녀는 서로 다른 기대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 Cancian(1985)은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여성은 주로 자기노출이나 감정적 몰입, 애정표현 등의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함께 활동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도구적인 도움이나 행동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Gilligand(1982)와 Rubin(1983)에 의하면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되고, 남성의 정체감은 분리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의 차이 때문에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은 흔히 분리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애착과 친밀감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여성은 타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 지향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독립성과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이성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므로, 그로 인해 갈등과 불만족이 야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이성

관계에서 관계 지향적이며 정서적 측면의 필요를 느끼는 데 반해, 남성은 분리 지향적이며 도구적 측면의 필요를 느끼므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과 기대들은 서로 간에 갈등과 불만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성관계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성 관계 만족도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 연구들에서는 애착 특성이나 성격특성,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또는 이성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나(김나리, 2002; 이경성, 2004; 이경성, 한덕웅, 2005;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허선이, 2005),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중 최근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Bahr, 1989; Knee, Lonsbary, Canevello, & Patrick, 2005; Knee, Patrick, Vietor, Nanayakkara & Neighbor, 2002)

개인의 동기에 대한 기존 이론에서는 외적 보상이 주어질 때에만 동기가 유발된다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를 강조한 입장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발적인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강조한 입장이 서로 대립해 왔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에서는 이러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간의 대립적인 입장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즉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환경적 조건에 따라 내재적 동기에 의해 적극적이고 통합된 자기로서 기능하느냐 외재적 동기에 의해 분열되고 수동적이며 반응적인 자

기로써 기능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가 채워질 때 생존할 수 있으며 재생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내재적 동기가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에 반해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의해서 외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처럼 기본적 욕구에 대한 심리적 자양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욕구를 지지하고 만족시키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Deci와 Ryan(1985)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 유능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느낄 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사회적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자기효율성을 느낄 때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을 때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eci와 Ryan(2000)은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외재적인 동기에서 완전히 내재적인 동기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동기를 개념화하였으며,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은 자기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참여하게 되

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Deci와 Ryan(2000)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자발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에서도 외부 압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사건에서 압박을 덜 느끼며 갈등을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재적 동기가 낮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목적과 선호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압박감과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Hodgins와 Kneec(2002)는 자기결정이론에서의 내재적 동기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원리를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성관계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맥락일 때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는데, 이성관계에서의 내재적 동기란 이성 관계에 대해 억압당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으며, 상대방과 관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외재적 동기란 외적인 보상이 되거나 처벌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 이성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를 갖는 경우,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방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상대방을 더욱 이해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성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갈등에 개방적이면서 관계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Kneec 등, 2005), 관계를 유지하

는데 필요한 대처전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Knee, et al., 2002). 반면 내재적 동기가 낮은 사람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denial)이라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Knee, et al., 200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내재적 동기가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관계 만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은 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기 결정이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서도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Arellano와 Markman(1995)은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수 없는 것이 관계 불만족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연인관계에서의 갈등해결 전략을 알아보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전의 많은 질문지는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의사소통의 세세한 기술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족에 포함될 수 있는 기제를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건설적이고 파괴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각 하위척도를 긍정적 전략과 부정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김나리(2002)는 Arellano와 Markman(1995)의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8개의 요인구조로 나누었다. 각각의 요인은 관심과 이해, 부정성, 긍정적 감정표현, 부정적 감정표현, 초점유지, 유예, 확인, 그리고 철회이다. 관심과 이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 해결전략을 나타내고, 부정성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신경을 건드리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등의 부정적 해결 행동을 의미한다. 긍정적 감정표현은 평소에 불만보다는 애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감정표현은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점유지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지에 대한 것이다. 유예는 갈등이 너무 심할 때, 싸움을 멈추고 더 좋은 시간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확인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회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말이 없이 자리를 피해버리는 부정적 해결 행동을 의미한다. Bahr(1989)의 이성교제와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갈등해결방식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에의 의지 등의 긍정적인 대처방법은 관계만족을 높이는 반면, 갈등을 피하거나 부인,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은 만족도를 낮추었다.

특히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성차연구에서는 남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여성은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제안하는 편이고, 남성은 자신의 정서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의논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ancian, 1985). Knee 등(2005)의 연구에서도 갈등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이해하려는 행동을 더욱 많이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행동적 표현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남성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꺼려하여 철회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갈

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Cancian & Gordon, 1988; Surra & Longstreth, 1990). 이러한 연구들은 갈등해결 방식에서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해결전략들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이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전략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성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욕구 충족 및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 인지를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이성 관계에 대해 연구한 Kneec 등(2002), Kneec 등(2005), 그리고 Blais 등(1990)의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기결정이론에서 심리적 욕구 충족은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경험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변인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만족도 간의 관계들만을 포함시켰을 뿐이며,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 변인인 심리적 욕구 충

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관계 만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도 포함시켜서 보다 포괄적인 모델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남녀 차이에 대한 비교에서는 갈등해결전략 또는 관계 만족이라는 각각의 변인들의 평균 차이만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성 관계에서 남녀 행동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예: 경청 등)의 정도가 많은가 적은가 보다는 이성 관계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어떤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즉, 사회 맥락적 변인인 심리적 욕구충족은 이성 관계에 대한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를 촉진시키고, 내재적 동기는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사용은 관계만족을 높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심리적 욕구충족,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그리고 관계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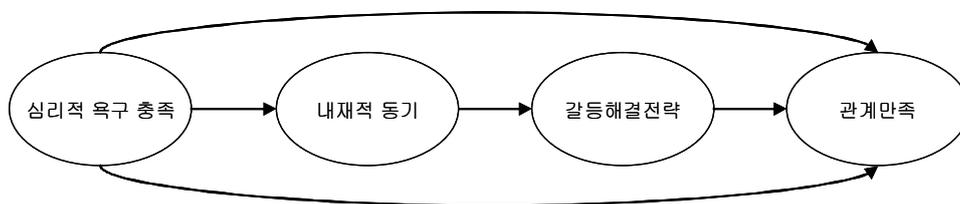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욕구충족과 관계만족 간에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셋째, 성별에 따라 심리적 욕구충족과 관계만족 간에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지역에 있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44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87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게 된 것을 제외시켜 360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 구

심리적 욕구 충족

심리적 욕구 충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소영, 신희천(2006)이 개발한 커플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커플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PNISC)에서는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방식으로 문항이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측정하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를 “~한 적이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없었다’에서 ‘매우 많았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성별 (n=360)	남자	165 (45.8)
	여자	195 (54.2)
연령 (n=360)	18-20세	129 (35.8)
	21-23세	147 (40.8)
	24-26세	77 (21.4)
	27세 이상	7 (1.9)
교제기간 (n=360)	6개월 미만	143 (39.7)
	6-12개월 미만	85 (23.6)
	1-2년 미만	84 (23.3)
	2-3년 미만	22 (6.1)
교제경험횟수 (n=360)	3년 이상	25 (6.9)
	무응답	1 (.3)
	1회	90 (25.0)
교제경험횟수 (n=360)	2회	96 (26.7)
	3회	62 (17.2)
	4회 이상	106 (29.4)
	무응답	6 (1.7)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관계성(문항의 예: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자율성(문항의 예: 상대방의 의견이나 영향에 구속받은 적이 있다), 유능성(문항의 예: 내가 부적절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각 하위 요인별로 7문항씩 21문항이다. 원 척도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척도가 .80,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81, .61, .62이다(한소영, 신희천, 2006).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각각 .74, .81, .81이었다.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

관계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Blais 등(1990)이 개발한 커플 동기 척도(Couple Motiv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기법으로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번안 절차는 먼저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를 이중 언어자가 역번안하였으며 역번안된 척도와 원척도를 원어민이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를 대상으로 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형식으로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데 자기결정이론에 의해 가정된 6가지 동기유형을 평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원 척도 21문항을 번안과정에서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 맞도록 수정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성관계에 관한 하나의 문항(“Because my relationship with my partner enables me to have a more stable sex life with someone I choose.”)을 제외시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통합된 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인데, 통합된 동기와 성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혼전 커플과 부부의 성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외시켰다. 6가지 동기유형은 무동기(amotivation)(문항의 예: 나는 남자(여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동기가 없다), 외부 조절(external regulation)(문항의 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가족, 친구) 우리 관계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문항의 예: 그는 나의 중요한 과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확인된(identified) 동기(문항의 예: 내가 중요하다고 느

끼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남자(여자)친구와 사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integrated) 동기(문항의 예: 남자(여자)친구와 의미 있고 지속적인 여러 가지 주고 받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내재된(intrinsic) 동기(문항의 예: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미치도록 좋고 재미있는 여러 순간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이다. ‘무동기’에서 ‘내재된 동기’로 갈수록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의 점수를 상대적인 연속선상에 두고 각 동기 유형별로 -3, -2, -1, +1, +2,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서의 내재적 동기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2이다. 원 척도에서의 관계 내재적 동기 점수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자가 .80, 여자가 .75이다(Blais et al., 1990).

갈등해결 전략

갈등해결 전략은 Arellano와 Markman이 1995년에 개발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김나리(2002)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Arellano와 Markman(1995)은 성인대상의 연구에서 .58에서 .92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관심과 이해(문항의 예: 내 남자(여자)친구가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부정성(원래의 뜻보다 더 부정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해석한다), 긍정적 감정표현(문항의 예: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남자(여자)친구에게 말한다), 부정적 감정표현(문항의 예: 나는 남자(여자)친구에게 화가

날 때 그(그녀)에게 말한다), 초점유지(문항의 예: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주제에서 벗어나면 나는 다시 주제로 돌아가려고 한다), 유예(문항의 예: 사태가 과열되면 일단 싸움을 멈추고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한다), 확인(문항의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체크한다), 철회(문항의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가끔 자리를 피한다)의 8개 하위차원을 포함하고 있고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김나리(2002)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증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58에서 .91까지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 요인별로 .88, .83, .89, .85, .71, .82, .63, .66이고, 전체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8이다.

관계만족

관계만족은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이성 관계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문항의 예: 내 이성교제는 매우 만족스럽다)를 사용하여 관계만족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관계에 만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소영(2000)의 연구에서 관계만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다.

분석 방법

이성 교제 경험이 있거나 교제 중인 대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과 이성 관계 만족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가 사용되었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t검증 결과, 심리적 욕구충족 중 유능성 욕구충족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이성 관계에서 유능성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에서는 '부정성'과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성차를 보였다. 부정성은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신경을 건드리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부정적 감정표현은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으로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났을 때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부정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 불만족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매개 효과 분석

매개 변인의 검증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측 변인이 결과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구 분		M(SD)	M(SD)	M(SD)	t
		남(165명)	여(195명)	전체(360명)	
심리적	관계성	5.22(.94)	5.26(.82)	5.24(.87)	-.38
욕구	자율성	4.64(.90)	4.72(.91)	4.68(.90)	-.85
충족	유능성	4.72(.87)	5.20(.95)	4.97(.94)	-4.88***
내재적 동기		5.13(4.22)	4.98(4.75)	5.05(4.51)	.32
갈등 해결 전략	관심과 이해	3.83(.47)	3.83(.46)	3.83(.47)	-.06
	부정성	2.49(.55)	2.67(.60)	2.59(.58)	-3.03**
	긍정감정표현	3.81(.66)	3.81(.71)	3.81(.69)	.04
	부정감정표현	3.40(.68)	3.68(.73)	3.55(.72)	-3.71***
	초점유지	3.10(.69)	3.18(.64)	3.14(.66)	-1.15
	유예	3.12(.91)	2.94(1.00)	3.02(.97)	1.71
	확인	3.23(.70)	3.28(.61)	3.26(.65)	-.75
	철회	2.62(.73)	2.46(.83)	2.53(.78)	1.86
전반적 불만족		1.30(.27)	1.33(.30)	1.32(.29)	-1.31

* $p < .05$ ** $p < .01$ *** $p < .001$ ()은 표준편차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예측 변인이 매개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인이 결과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예측변인의 β 계수가 매개변인 추가 시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full mediation),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part mediation)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지 살펴본 후,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변인들에 대해 회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회귀계수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밝히고

자 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욕구 충족 전체는 전반적 불만족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욕구 충족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갈등해결전략에서도 초점유지와 유예를 제외하고 관계 불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부정성 및 철회)과 전반적 불만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긍정적 갈등해결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관계성	남자													
1 욕구 충족	여자													
	전체													
자율성	남자	.12												
2 욕구 충족	여자	.33***												
	전체	.23***												
유능성	남자	.41***	.38***											
3 욕구 충족	여자	.43***	.30***											
	전체	.41***	.34***											
내재적 동기	남자	.53***	.27**	.36***										
4	여자	.57***	.17*	.20**										
	전체	.55***	.21***	.25***										
관심과 이해	남자	.44***	.26**	.26**	.53***									
5	여자	.48***	.19**	.34***	.54***									
	전체	.46***	.22***	.29***	.53***									
부정성	남자	-.23**	-.29***	-.18*	-.37***	-.44***								
6	여자	-.24**	-.29***	-.13	-.27***	-.34***								
	전체	-.23***	-.28***	-.11*	-.31***	-.38***								
긍정 감정 표현	남자	.55***	.21**	.27***	.64***	.73***	-.29***							
7	여자	.63***	.13	.34***	.72***	.69***	-.17*							
	전체	.59***	.17**	.30***	.69***	.71***	-.22***							
부정 감정 표현	남자	.41***	.17*	.33***	.40***	.47***	.13	.56***						
8	여자	.36***	.20**	.48***	.36***	.45***	.10	.54***						
	전체	.37***	.19***	.44***	.37***	.45***	.14**	.53***						
초점 유지	남자	.08	.05	.23**	.15	.17*	.17*	.20**	.32***					
9	여자	.01	.08	.07	.07	.29***	.14*	.21**	.23**					
	전체	.05	.07	.15**	.10	.23***	.16**	.21***	.28***					
유예	남자	-.02	.03	.05	-.06	.12	-.15	.11	.01	.15				
10	여자	.02	-.06	-.09	.00	.08	-.08	.00	-.15*	-.02				
	전체	.00	-.03	-.05	-.02	.10	-.12*	.05	-.10	.05				
확인	남자	.32***	.14	.39***	.33***	.49***	.01	.55***	.62***	.32***	.05			
11	여자	.32***	.13	.35***	.34***	.41***	.09	.44***	.63***	.39***	-.14			
	전체	.32***	.14*	.37***	.34***	.45***	.06	.49***	.62***	.36***	-.05			
철회	남자	-.19*	-.23**	-.36***	-.29***	-.29***	.32***	-.26**	-.36***	-.03	.11	-.40***		
12	여자	-.23**	-.30***	-.33***	-.21**	-.16*	.13	-.24**	-.38***	-.02	.20**	-.25***		
	전체	-.21***	-.27***	-.35***	-.24***	-.22***	.19***	-.25***	-.38***	-.03	.17**	-.32***		
전반적 불만족	남자	-.58***	-.12	-.33***	-.58***	-.42***	.27***	-.65***	-.39***	-.14	-.15*	-.41***	.26**	
13	여자	-.58***	-.12	-.26***	-.63***	-.46***	.22**	-.67***	-.45***	-.02	-.02	-.36***	.17*	
	전체	-.57***	-.12*	-.26***	-.61***	-.44***	.25***	-.66***	-.41***	-.07	-.08	-.37***	.20***	

* $p < .05$, ** $p < .01$, *** $p < .001$ 남자:165명, 여자: 195명

전략(관심과 이해, 긍정감정표현, 부정감정표현, 및 확인)과 전반적 불만족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이성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철회하는 행동을 할수록 관계에서의 만족은 낮아지며,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할수록 관계에서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

전반적 불만족을 준거 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으로 변인을 투입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서는 상관 관계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변인들 중 세 변인이 제외되

었다. ‘초점유지’와 ‘유예’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인 예측 변인(내재적 동기 또는 심리적 욕구충족)이 매개 변인(초점유지 또는 유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Baron & Kenny, 1986)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관심과 이해는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모두 유의하였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심리적 욕구충족 관계성 욕구충족이 전반적 불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F=58.64$ $p<.001$), 욕구충족을

표 4. 전반적 불만족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단계1 β	단계2 β	단계3 β	R ²	ΔR^2	변화량 F
관계성 욕구충족	-.56***	-.33***	-.22***			
자율성 욕구충족	.02	.06	.08	.33	.33	58.64***
유능성 욕구충족	-.04	-.04	.02			
내재적 동기	-	-.44***	-.24***	.47	.14	90.70***
부정성			.12**			
긍정감정표현			-.29***			
부정감정표현	-	-	-.11*	.53	.07	11.29***
확인			-.06			
철회			-.03			

* $p<.05$, ** $p<.01$, *** $p<.001$

주 1. 단계1: 심리적 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투입

단계2: 내재적 동기 추가로 투입

단계3: 갈등해결전략 추가로 투입

통제한 상태에서 내재적 동기는 전반적 불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90.70, p<.001$). 그리고 욕구 충족과 내재적 동기를 통제 한 상태에서 갈등해결전략 중 부정성과 긍정감정표현은 전반적 불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11.29, p<.001$).

단계 2에서 내재적 동기($\beta=-.44, p<.001$)는

전반적 불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고, 단계 1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던 관계성 욕구충족($\beta=-.56, p<.001$)은 단계 2에서 내재적 동기가 투입되자 회귀계수가 감소하였지만 ($\beta=-.33, p<.001$) 유의미수준에서 무의미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관계성 욕구충족과 전반적 불만족 간을 부분

표 5. 성별에 따른 전반적 불만족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성별	예언변인	단계1 β	단계2 β	단계3 β	R ²	ΔR^2	변화량 F	
남	관계성 욕구충족	-.53***	-.35***	-.24**	.33	.34	27.75***	
	자율성 욕구충족	-.01	.06	.09				
	유능성 욕구충족	-.10	-.06	-.06				
	내재적 동기	-	-.39***	-.20*	.43	.10	29.85***	
	부정성			.05	.50	.08	5.21***	
	긍정감정표현			-.35***				
	부정감정표현	-	-	.03				
	확인 철회			-.06 .04				
	여	관계성 욕구충족	-.60***	-.33***	-.24**	.34	.35	34.28***
		자율성 욕구충족	.08	.07	.07			
유능성 욕구충족		-.03	-.06	.06				
내재적 동기		-	-.46***	-.25**	.48	.14	53.29***	
부정성				.13*	.55	.08	7.14***	
긍정감정표현				-.24**				
부정감정표현		-	-	-.24**				
확인 철회				-.02 -.05				

* $p<.05$, ** $p<.01$, *** $p<.001$

주 1. 단계1: 심리적 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투입

단계2: 내재적 동기 추가로 투입

단계3: 갈등해결전략 추가로 투입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계 3에서 갈등해결전략 중 부정성($\beta=.12, p<.01$)과 긍정감정표현($\beta=-.29, p<.001$), 부정감정표현($\beta=-.11, p<.05$)은 전반적 불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고, 갈등해결전략이 투입되자 관계성 욕구충족($\beta=-.22, p<.001$)과 내재적 동기($\beta=-.24, p<.001$)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으며 역시 유의미수준에서 무의미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해결전략 중 부정성과 긍정감정표현은 관계성 욕구충족 및 내재적 동기와 전반적 불만족 간을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매개 변인에서의 성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보기 위해 남녀를 구분지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해결전략 중 ‘초점유지’와 ‘유예’, 그리고 ‘관심과 이해’를 제외시킨 이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 중 긍정감정표현이 심리적 욕구충족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2단계에서 내재적 동기가 추가로 투입되자 유의하게 전반적 불만족을 설명하던 관계성 욕구충족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이 추가로 투입되자 관계성 욕구충족과 내재적 동기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관계성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긍정감정표현이 공통적으로 전반적 불만족을 설명해주는 것을 볼 때, 남자와 여자는 관계성 욕구 충족을 받은 사람들이

관계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자발적이고 내재적 동기에 의해 불평보다는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함으로써 관계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갈등해결 전략 사용함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는 긍정적 감정표현($\beta=-.35, p<.001$)만이 유의미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자는 긍정적 감정표현($\beta=-.24, p<.01$) 외에도 부정성($\beta=.13, p<.05$), 부정적 감정표현($\beta=-.24, p<.01$) 역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는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 감정 표현을 통해 관계만족을 높이는 반면, 여자들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되 과도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관계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심리적 욕구 충족과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둘째, 심리적 욕구충족과 관계만족 간에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셋째,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욕구 충족 중 유능성 욕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성 관계

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능성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측정 한 소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대한 욕구의 중요성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고, 유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종합해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자율성과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는 유능성의 욕구가 남자보다 더 많이 충족되었다. 여자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가지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운 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적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충족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과 충족 사이의 관계를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해결전략에서는 ‘부정성’과 ‘부정적 감정표현’이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갈등이 생겼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남성이 문제를 회피하며 강한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갈등해결 과정을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거나 문제에 직면하고자 하며 부정적인 행동을 남자보다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Levinson & Gpman, 1985; Cancian, 1985).

이성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욕

구충족, 내재적 동기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에 대한 충족경험이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에 의해 매개되어 관계에서의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와 존경 및 친밀감을 느끼기 원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이성 관계에서 충족되면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보다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주어, 결국 관계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자발적인 내재적 동기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대처방식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학교라는 상황적인 맥락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한데 반해 이성 관계라는 상황적인 맥락에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eci와 Ryan(1985)는 세 가지 욕구 각각은 최적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 부분이며 세 가지 욕구가 모두 만족되어야 심리적 건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데 반해, 본 연구와 김주환 등(2006)의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욕구

에 대한 충족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성취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충족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인 긍정감정표현이 남녀 동일하게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긍정감정표현 외에도 부정성과 부정감정표현이 유의미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긍정감정표현이 관계만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서로 친밀하다고 느끼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자발적인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며, 내재적 동기로 인해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불만보다 애정을 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녀차이를 살펴볼 때 남자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에 대한 만족을 얻지만, 여자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관계만족을 느끼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제안하는 편이고, 남성은 이러한 의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Cancian, 1985)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남성이 일반적으로 모든 감정

에 대한 정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감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긍정적 감정표현은 관계만족을 높이지만 부정적 감정표현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즉 남성들은 모든 정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히 부정적 정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 표현은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Cancian & Gordon, 1988; Surra & Longstreth, 1990)를 지지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달리 부정적 감정 표현도 중시함으로써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 결과에서는 밝혀지지 못했던 본 연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이 부정적인 것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만족을 낮춘다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태도가 여성의 관계만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이성 관계 만족에 대해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결정이론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가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맥락적 변인으로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계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자기결정이론을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녀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이성 관계에서 불일치와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관계 만족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즉, 자신과 다른 이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파트너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불일치함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남녀가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 간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두 사람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커플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욕구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그리고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인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커플 모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이성 관계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에 대한 도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이성 관계 만족에 적절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혼 만족도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 만족도와 이성 관계 만족은 구성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이성 관계 만족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가 중요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는 각기 다른 심리적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특히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와 자기결정

을 강조하는 서구문화의 개념을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에서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면접이나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 243-264.
- 설기문 (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청소년 상담 이론 모형의 모색.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8.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131-150.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

-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63-184.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 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 85-102.
- 최순남 (1989).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한신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호, 31-67.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 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허선이 (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2002).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Arellano, C., & Markman, H. (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19-334.
- Bahr, S. J. (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ancian, F. M. (1985). Love and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kolnick, A. S., & Skolnick, J.H.(ed),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Cancian, F., & Gordon, S. L. (1988). Changing emotional norms in marriage: Love and anger in U.S. women's magazines since 1900. *Gender and Society*, 2, 308-34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Gilliland, C.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dgins, H., & Knee, C. R. (2002). The integrating self and conscious experienc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 87-100).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nee, C. R., Patrick, H., Vietor, N. A., Nanayakkara, A., & Neighbors, C. (2002). Self-determination as growth motiv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609-619.
- Knee, C. R.,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89(6), 997-1009.
- Levinson, R. W., & Gottman, J. M.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755-773.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Rubin, L. B. (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a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1 차원고접수 : 2008. 4. 28.
심사통과접수 : 2008. 6. 3.
최종원고접수 : 2008. 6. 6.

**Roles of autonomy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entment of psychological needs
and the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So-young Kwak

Ewha Womans University

Eun Jung Son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We investigated (a) if there would b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degree of the contentment of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b) if autonomy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ould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entment of psychological needs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c) if there would b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mediation roles. Three hundred sixty one University students (male 165, female 196)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a) the contentment of relation psychological need, negativity and negative emotion expression showed high score for female than for male, (b) autonomy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entment of psychological needs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c) autonomy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entment of psychological needs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in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The positive emotion expression among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as the only mediation variable for male, whereas not only the positive emotion expression but also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negativity were the mediation variables for female.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ormed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gave the available knowledge about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romantic relationship.

Key words :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self-determination, intrinsic motivati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psychological needs